

# 韓國傳統政治文化的 現代的 照明

金 雲 泰\*

.....〈목 차〉.....

〈前號掲載目次〉

I. 序 論 II. 韓國政治文化의 傳統的 要素의 特性과 그 영향 III. 韓末開化期의 韓國政治文化의 近代化 過程	IV. 日帝植民統治下에 政治文化의 歪曲 以上 行政論叢 제31권 제1호 掲載分
--	---

〈本號目次〉

V. 韓國傳統政治文化의 現代的 照明	VI. 國家論의 現代的 照明
---------------------	-----------------

.....

## 〈요 약〉

韓國政治文化는 日帝植民統治下에서 歷史意識의 歪曲과 變質 또는 단절이라는 심각한 상처를 입어야 했었고 解放後 分斷體制下에서는 다시 政治意識의 異質化의 갈등이라는 또 다른 危機와 制約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傳統的으로 승계된 政治文化의 상처나 政治意識의 제약 등은 모두 民族史의 밖으로부터 주어진 他律現象으로써 이들은 각각 원하지도 않은 식민통치와 뜻하지도 않은 민족분단으로 야기된 일시적인 변절이란 특징을 가지고 있기에 이러한 他律로 강요된 文化的 혼란을 극복하고 韓民族의 主體의인 文化命脈을 다시 발굴 배양하여야 할 것이다.

해방후 東西文化가 融合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韓國文化의 근대화에 크게 기여하였으나 新舊의 文化型이 단편적으로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文化갈등을 조정하고 있으며 그 갈등의 농도는 世代間, 地域間 및 階層間에서 현저하게 드러나고 있다.

우리는 現代韓國政治文化의 特質을 다음의 7個의 屬性으로 要約할 수 있다고 본다. 첫째로 權威主義의 性向, 둘째로 特性으로 共同體性, 셋째로 市民性, 넷째로 分派性과 派閥主義, 다섯째로 抵抗性, 여섯째로 民族的 主體性, 일곱째로 平等性 등을 들을 수 있다고 본다.

다음 國家論의 現代的 照明에서 개념상 國家를 한 部分社會나 한 社會團體로 파악하는 多元國家論이나 國家를 政府와 同一視하는 기능주의 국가론

\* 서울대 행정대학원 명예교수, 단국대학교 초빙교수

※ 備考: 本論文은 行政論叢(제31권 제1호)에 실린 '韓國政治文化의 特性과 변천'의 계속이며 예정한대로 金雲泰外 共著, 「韓國政治論」에 게재된 것을 재게제한다.

의 시각에서는 現代의 多元化된 社會에서 절실하게 요구되는 共同社會의 統合性에 대한 解答을 주지 못한다. 解放後 한국의 權威主義는 기본적으로 社會 및 經濟的 要因보다도 國內 및 國際政治的 要因이 작용해서 생성한 것이기 때문에 南美 등에서 나타난 소위 官僚的 權威主義와는 상이한 것이다. 그러므로 1960年代 이래 한국의 政府主導下의 產業政策은 한 近代化戰略으로서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이지 從屬理論으로 설명하기에는 논리가 희박한 것이다.

韓國에서는 輸出主導型發展戰略을 택하여 開放政策을 지탱하고 있으며 1980年代 후반부터는 社會의 다양화와 自律化 및 國際化를 지향하여 自生的 社會勢力도 강화되고 조직화되어 있으며 市民社會階層의 기반이 확대되고 있다. 對外關係에 있어서도 종래의 依存關係를 청산하고 相互依存과 協力으로 自主的으로 國家利益을 증진하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이로써 韓國은 南美型과는 相異한 日本型의 發展戰略을 지탱하고 있고 官僚文化도 南美型의 官僚的 權威主義와는 상이한 韓國獨유의 權威主義가 생성되고 있는데 그것은 傳統的 儒敎文化와 日帝植民主義 遺産이 계승되고 특히 6·25전쟁과 5·16군사변을 계기로 한국 통치체제에 뿌리깊이 체질화되어 확장된 軍事的 경직성이 은존되어 있고 나아가서 政府主導 經濟政策이 파생한 新版權威主義와 소위 국가조합주의(corporatism) 경향 등 여러가지 요인이 혼합된 데 특성이 있는 것이다. 오늘날 다양하게 성장한 社會勢力을 自由民主主義속에서 수렴시켜야하며 이들의 요구를 결집한 政黨의 조직화도 요망된다. 다만 分斷體制下에서 社會統合의 필요에서 어느 程度의 權威主義는 지속될 것이며 一部 社會疎外勢力의 요구를 결집시키고 이들의 政治行政參與를 제도화시켜 國家組合主義的 후진성을 탈피하는 것이 당면과제라 하겠다.

## V. 韓國傳統政治文化的 現代的 照明

### 1. 傳統文化的 繼承과 他律的 傷處

앞에서 우리는 韓國政治文化的 傳統的 基盤과 韓末開化期의 近代化的 萌芽 그리고 日帝植民時代의 歪曲된 政治文化 등을 살펴 왔다. 解放後 韓國現代의 政治文化를 규명하는데 있어서 오늘의 韓國國民의 民族史的 座標를 살렸을 때 우리는 여기서 극복하지 않으면 안될 制約的인 측면들이 먼저 지적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앞에서도 지적되었듯이 日帝植民統治라는 과거의 제약과 분단국가라는 오늘날의 모순으로 크게 요약된다. 韓國國民은 前者에서 歷史意識의 왜곡과 변질 또는 단절이란 심각한 상처를 입어야 했었고, 後者에서는 다시 政治意識의 異質化의 갈등이란 또 다른 위기와 제약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먼저 식민지시대의 부정적인 상처와 함께 分斷體制下의 異質化의 갈등을 극복해야만 하는 것이다. 전자의 傷處를 청산하기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오늘의 한국민에게

民族史의 正統性에 대한 再認識이 요구되고 후자의 矛盾을 극복하기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民族的 主體性에 대한 再認識이 또한 요구된다고 하겠다. 日帝植民支配는 우리의 4천년 이상의 긴 歷史에서 일찍이 경험하지 못했던 國家主體의 喪失이요 民族의 危機이었다.<sup>1)</sup> 이것이 남긴 韓國史上最大의 歷史的 不幸이나 民族的 損失에 관하여는 앞에서 論한 바와 같다. 그리고 解放된 韓民族에게 民族의 分析을 강요한 戰後聯合國의 占領政策은 이미 民族史에 대한 또 하나의 功課이었다. 여기서 民族이 解放은 되었으나 歷史는 아직 光復이 되지 않았다는 아이러니가 따랐던 것이다.

아직도 완전히 光復<sup>2)</sup>되지 않았다는 民族史의 制約 그것이 바로 政治文化面에서도 아직도 韓民族이 歷史的으로 완전히 자기들의 本來的인 固有 政治文化를 회복하지 못하였음을 의미한다.

우리가 오늘날 民族分斷으로 말미암아 입고 있는 政治文化面의 制約으로는 첫째 人種, 言語, 歷史 등 文化的, 地理的, 역사적 制約요소를 기반으로 자연적으로 형성된 一次的이고 원초적인 유대(primary tie)가 이완 또는 異質化된 데 따르는 문제이며 또 하나는 統一民族으로서의 오랜 傳統과 分斷민족이란 오늘의 현실사이의 乖離現象으로써 南北間의 觀念的 紐帶와 公民的 紐帶의 分裂로 말미암은 간격으로 인하여 야기되고 있는 政治意識面이 있어서 傳統과 現代사기의 時間的 空間的인 단절의 문제인 것이다. 또한 韓半島가 南北으로 分斷된 관계로 韓國이 가지는 國際舞臺에 있어서의 自己位置나 그 歷史的 使命 그리고 그러한 것에 대한 자기인식조차 分斷과 격차가 경요되었고 朝鮮時代 이전에 경험했던 傳統文化의 土臺가 거의 희석 또는 반분으로 위축된 기반 위에서 현대 문화를 수용하고 육성하지 않으면 안되는 制約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다.

그래 他律로 주어진 한민족의 分斷에는 처음부터 兩大 強大國 이데올로기에 의한 異質的 分斷이란 제약이 따르고 있었으며 그리고, 정치의식에 있어서의 심각한 同質性의 파괴를 의미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은 그대로 民族의 文化面에서의 分斷 내지 歷史의 파괴라는 심각한 이질화로 연결되는 것이다.

1) 大陸으로부터의 鐵器文明의 侵略에 해당하던 漢四郡 때에도 우리는 部族國家를 가지고서 이것을 물리침으로써 오히려 보다 강한 古代國家를 이루어 나갔고(部族國家聯盟으로서의 高句麗 등) 다시 몽고족·만주족들과 같은 北方民族들의 무서운 침략 뒤에서도 여전히 國家라는 主體를 지켜 나왔던 것이다(對元 服屬關係나 對淸 主從關係라 하더라도). 그것은 민족사와 함께 이어온 韓民族의 國家的 正統性의 永續性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2) 근대 제국주의 침략 앞에서 역사 속에서 잃을 수 있는 주체는 국가만이 아니고 민족도 있고 문화권도 있기에 여기서의 광복은 국가와 민족과 문화권을 포함하는 모든 역사의 주체에 대한 회복을 의미하는 온 역사적인 光復으로 사용된 것이다.

여기서 바로 분단된 오늘의 한민족에게는 이념과 사상에 있어서의 비주체성意識에 있어서의 공통유대상실 비역사성 그리고 文化에 있어서의 無國籍性 등과 같은 제약들이 따르고 있었다. 이같은 제약들은 그대로 政治文化나 政治意識에 있어서의 비민족주체성 또는 비역사성 등으로 요약될 수 있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한민족의 정치문화를 이루어 왔던 韓國史的 傳統과 오늘의 韓民族의 政治意識을 형성하고 있는 韓民族的 現實 사이에 나타나고 있는 이 심각한 이질화의 갈등, 바로 여기서 오늘의 한민족에게는 역사의식의 단절(政治文化의 측면)이니 전통없는 近代(政治意識의 측면)이니 하는 제약과 비판들이 따르고 있는 것이다.

한편으로 이같은 분단민족사<sup>2)</sup>로 인하여 韓民族이 입어야 하는 정치의식의 제약 가운데에서 우리는 다시 분단 이후 특히 심화되었던 意識의 外部指向的 傾向을 들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한마디로 한민족의 자율보다는 강대국의 타율 현상이 압도적이었던 分斷民族史의 필연적인 산물이었던 것이다. 이같은 意識의 외부지향적인 경향에는 흔히 내부지향적 의식이 가질 수 있는 합리성이나 그 자율적인 창조성이 결여될 수 밖에 없다는 제약이 따른다.

여기서 해방 이후 한민족의 정치의식에는 民族的 內部指向的 自律을 통한 창조성이 강대국에 대한 외부지향적 他律現象에 의하여 위축받는 제약이 따랐던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政治文化의 상처나 政治意識의 제약 등은 모두 民族史의 밖으로부터 주어진 他律現象들이라는 점에서 공통되고 있다. 그리고, 그것들은 각각 원하지도 않은 식민통치와 뜻하지도 않은 민족분단으로 야기된 일시적인 변질이란 특징을 또한 가지고 있다.

여기서 오늘의 한민족은 이같이 타율적으로 주어진 정치문화의 제약 앞에서 좌절되어서도 안되고 또한 일시적으로 나타난 政治意識의 갈등 앞에 실망하여서도 안된다. 여기서 한민족은 상처받은 정치문화 속에 도식적으로 머물러서도 안되고 또한 갈등 속에 이질화되고 있는 정치의식에 의하여 수동적으로 지배되어서도 안된다.

여기에 바로 오늘의 한민족에게서 요구되는 發展的인 政治觀의 문제가 결실

2) 民族史의 文脈(5천년 單一民族史와 1천년 이상의 統一民族史)에서 볼 때 우리의 '分斷'은 단순한 국토의 분단이나 政治的 分斷을 넘어선 民族的 分斷, 歷史的 分斷으로 심화될 위험성마저 없지 않다. 여기서 분단에 의한 民族的 異質化나 歷史的 異質化의 위기는 그대로 민족적 이질화나 역사적 이질화에 의하여 民族史에 상처를 입었던 식민시대의 역사단절과 연결되는 민족사의 또 하나의 심각한 위기를 의미하는 것이다(그것이 바로 분단에 의한 民族史의 正統性的 위기인 것이다).

학· 것이다. 이때 발전적인 정치관이란 정치문화면으로는 식민통치에 의하여 잘못 입혀진 상처를 씻고 韓民族의 본래적인 그것을 회복함으로써, 그리고 정치의식면에서는 他律로 강요된 意識의 혼란을 극복하고 韓民族의 主體的인 그것을 다시 발굴함으로써 각각 가능한 것이며, 해방 후 한동안 우리 나라에는 대중문화가 생성될 사회적 기반은 사실상 거의 없으면서도 사회의식과 지적수준이 낮은 국민을 대상으로 한 매스컴의 최면술에 걸려서 美國의 大衆文化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했기 때문에 외래의 대중문화가 한국인의 그리고 한국의 物質文化· 규범문화 및 觀念文化에 지배적인 영향을 미쳐온 것이다. 오늘날 한국인에 미친 大衆文化의 病理로서는 人間의 不安·緊張·無關心을 조성하는 疎外現象과 金權萬能主義的 價值觀의 病理와 그리고 향락 제일주의의 소비문화 그리고 선정과 안일을 자극하는 본능문화 등이 그 대표적인 특징이라 하겠다.

이와같이 외래의 대중문화가 한국사회, 특히 젊은 세대에서 만연되어 그 병리를 드러내고 있는 것은 韓國民族文化의 主體性的 존재여부를 의심케 하는 것으로 이것은 무엇보다도 日帝植民統治와 美軍政이 남긴 후유증이요 그 최악이라 하겠다. 여하간에 해방 후 외래문화는 한동안 교육과 생활문화를 통하여 뿌리를 내리려 하였으며 이러한 환경속에 자란 세대가 사회의 엘리트로서 등장하게 되자 여기에서 많은 文化的 葛藤을 야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날 정치적으로 가장 문제시되는 것으로 세대간의 갈등과 정치이념 갈등을 들수 있다.

세대간의 갈등은 주로 사회화 과정의 차이에서 기인한다. 즉, 既成世代는 일제시나 해방초기에 교육을 받았고 또 가정에서는 傳統的文化에 의하여 個性形成이 이루어진 데 반하여 젊은 세대는 해방 후에 교육을 받았고 특히 해방후 격변하는 여러 政治變革에 참여하여 體驗을 통한 政治意識의 自己啓發의 機會를 가졌으며 또 미국을 위시한 외국에서 교육과 훈련을 받은 자가 많으며, 특히 학교나 교육기관 그리고 매스컴의 영향을 강력히 받아 개성이 형성된 것이다. 이리하여 세대간의 갈등은 흔히 傳統的 規範에 준거하는 기성세대가, 외래의 소위 근대적 가치를 자신의 행동규범으로 삼고 있는 젊은 세대의 행위를 평가하려고 하고, 이에 대하여 젊은 세대는 반발하는 가운데서 더욱 조장되고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 2. 東西文化의 融合

여기서 오늘의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西歐文化와 東洋文化를 간단히

비교하면서 東洋文化 중에서도 韓國文化의 特性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西洋社會와 東洋社會의 文化的 特質을 비교하면 西洋社會는 契約社會로서 個人的 自由와 平等 그리고 民主主義를 指向하는 普遍主義와 個人的 自覺과 尊嚴性을 尊重하는 個人主義 그리고 人間的 進取性과 自立性 그리고 成就의 效果를 所重히 여기는 意志主義와 科學과 世俗性과 效率性과 勞動을 추구하는 실용주의 나아가서는 과학과 진리추구 및 분석주의를 추구하는 合理主義를 志向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東洋社會는 共同體社會로써 階層的 位階秩序를 重要視하는 權威主義의이고 傳統志向的 社會이다. 따라서 個人主義보다는 集團主義的 또는 全體主義的이고 宿命主義的이며 神秘主義와 直視主義의 特性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東西洋의 精神文化를 비교하며 우선 西洋宗教에 있어 神의 世界는 全知全能의 絶對的으로 신성한 영역으로서 불완전한 인간의 세계와는 준엄하게 二分된다. 이 二元性의 論理構造로 말미암아 모든 對立的 思考가 전개된다. 이로써 詩의 變증법적 대립은 투쟁을 통하여 正·반·합의 辯證法的 발전을 가져온다고 본다. 한편 동양인도 神을 信奉하지만 서양과 같이 절대적·초월적 존재로서 二分하지는 않는다. 그것은 主客未分의 渾一의 경지를 중시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따라서 자연과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상호보완적 의존관계를 중시한다. 佛敎의 ‘山川草木·悉皆成佛’(산천초목이 모두 부처가 된다)이라는 莊子의 ‘道無所不在’(도가 존재하지 않는 곳이 없다) 같은 만물일체관은 동양적 사고의 특징이며 여기서 분석보다는 종합을, 論理보다는 直觀을 그 思考方式의 특징으로 삼는다.

동양사상이라 할지라도 印度的 思惟와 中國의 사유는 그 경향이 또 다르다. 이는 동양사상을 대표하는 2대특질이라 할 수 있겠다. 中國의 黃土地帶인 황하 문명은 기후와 풍토가 실질적으로 勞作하지 않고는 생존할 수 없다. 따라서 실천사상이 발달한 實學인 데 반하여 印度文明은 열대지방의 森林文化로 명상과 觀照의 철학사상이다. 중국사상은 儒家를 위시하여 제자백가의 사상들이 다양하게 그 학설을 주장하지만 예를 들어 孔孟의 인본주의적 유학사상과 老莊의 자연주의사상과 法家의 현실주의 사상들이 그 주장하는 입장과 논리가 다르지만 결국에 목적하는 바는 경제치용의 치국평천하의 理論인 것이다.

일반적으로 한국의 전통문화의 가치특성과 구미문화, 동양문화의 가치특성은 서로 대립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나, 한국인의 의식구조 속에서 간접적이든 또는 직접적이든 외래문화의 전파와 의식이 가정과 학교와 사회 또는 매스컴에서

의 社會化過程을 통하여 진행되었기 때문에 지역·세대·연령·계층에 따라 여러 文化가 정도상의 차이를 가지고 혼합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歐美文化는 분명히 韓國文化의 근대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한국은 오늘날 문화적으로 근대화를 지향하는 과도기에 놓여 있으나 新舊의 文化型이 융합되지 못하여 단편적으로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갈등을 조성하고 있으며 그 갈등의 농도는 世代間·地域間 및 階層間에서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歐美文化는 韓國文化의 근대화에 기여했을 뿐더러 한국사회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 근대화에도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 그러나 韓國社會에 기여한 전례한 가치도 한국인의 그릇된 수용 또는 한국풍토에 맞지 않아서 社會的 逆機能을 수반하기도 했다. 예컨대 自由가 放縱으로, 個人主義가 利己主義로, 實用主義가 拜金主義로, 經驗主義가 超歷史主義로, 각기 변용되기도 했고 소비가 마덕인 미국문화는 국민의 소비성향과 전시효과를 높였으며 國際主義와 世界主義는 우리의 국가이익과 민족이익을 망각한 精神的 無國籍者를 만들게 하였다. 이와 같이 무비판적으로 수용된 외래문화는 전통문화와의 갈등과 괴리를 조성하여 사회적 병리를 야기할 수 있는 것이다.

職業階層에 따라 근대성과 전통성의 新舊文化價值間의 強調의 차이는 있겠으나 우리 나라의 농민과 도시의 가장 많은 직업계층인 화이트 칼라와 중산층 및 노동자의 의식구조는 오늘날 각기 많은 변모를 하여 정치과정에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우선 韓國의 農民은 아직도 家族·部落·門中 등의 공동체로부터 미분화된 지위에 있고 농민의 교육수준은 도시에 비해서 낮은 편이며 농촌인구 가운데서 비교적 연령이 젊고 교육수준이 높은 생산적 人口層은 都市로 빠져나오는 離村傾向이 아직도 멈추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농민은 농촌의 전통문화에 의하여 사회화되어 가고 있으며 1960년대 이후의 高度經濟成長과 1970년대 이후의 새마을운동의 전개 그리고 1980년대의 民主化 過程과 교육과 매스컴의 보급 및 그간 근 50여년 간의 民主主義政治의 經驗 등으로 농민의 정치의식은 많이 근대화되고 있으나 전통적인 農民意識이 갑자기 변모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며 血緣·地緣·學閥 등에 의한 歸屬主義와 불합리한 權威主義 그리고 閉鎖主義의 共同體意識 등이 뿌리깊게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농민의 投票行態는 어떤 緣故關係나 權力 또는 金力 등의 交叉壓力에 의하여 좌우되기 쉽고 또 그들의 이익을 대표하는 이익집단이나 정당을 조직할 만한 능력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다.

우리 나라에 있어서는 시민의식을 가장 잘 표현하는 계층이 중간계층이며 그의 의식구조는 일반적으로 舊中間階層과 新中間階層에 따라 커다란 차이가 있다. 즉, 舊中間階層은 中小商工業者와 自作農 등 소위 중산층에 해당하며 그리고 新中間階層은 소위 화이트 칼라라고 지칭하여 自由專門職業者·官吏·醫師·技術者 및 教師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前者는 부르주아지의 下層에 속하며 소시민적 性向이 강하며 현상유지를 위한 보수적 意識이 강하다. 그러나 後者는 주로 知識人들로서 의식수준이 높고 사회체제의 위기에 처해서 體制維持와 文化發展의 모순이 일어날 때 문화창조에 비판적 기능을 수행한다. 新中間階層은 20세기의 公共行政과 企業經營이 급격히 증가됨에 따라 주로 經營과 管理部門의 직무를 맡고 있으며 육체노동자에 비하여 임금수준이 높아서 의식과 생활태도는 부르주아화할 수 있다. 또 이들 新中間階層은 현대사회의 관료제와 인간소외화 경향으로 자유로부터 도피, 정치적 무관심, 고독 및 불안의식에 사로 잡히는 등 서구산업국의 유형을 답습할 가능성마저 있는 것이다.

이와 반대로 舊中間階層은 現存秩序의 유지와 안정에 관심을 두고 자주성과 자유의식이 강하며 大資本의 위협에서 항상 불안을 갖고 또 獨占資本에의 主從關係에서 연명할 수 있기도 하지만 自由企業에 대한 독립적이고 창의적인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고 小市民的 意識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우리 나라의 도시사회의 중심세력은 新中間階層인 화이트 칼라와 노동자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勞動者의 양·역할이 비대해지면 그들에 대한 적절한 사회적 처우가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그렇지 못할 때 外國에서의 예와 마찬가지로 勞資對立이란 형태의 사회문제가 뒤따르게 되어 平和의 民族統一, 國民統合에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는 것이다.

### 3. 現代韓國政治文化의 特質

우리는 여기서 現代韓國政治文化의 特質을 다음의 7個屬性으로 要約할 수 있다고 본다.

첫째로 權威主義的 性向이다. 韓國의 傳統的인 權威主義政治文化는 韓國社會에 깊은 뿌리를 내리고 오늘날까지 계승되고 있다. 그것은 古代의 샤머니즘적 神秘主義, 家父長的 傳統君主主義의 傳統, 官僚的 엘리트主義, 강력한 中央集權의 政治傳統 儒敎文化에 따른 社會位階秩序 등에 연원한 것이다. 전통적 권위주의의 屬性中 肯定的 側面인 윤리적 권위주의 性向은 朝鮮朝後期에 儒敎政治文化가 變質되고 勢道政治가 발호함에 따라 그 威勢가 凸出하는 傾向에 있었으며



관대로 否定的인 側面으로서 權威를 族閥主義와 派閥主義에 의한 일당전제와 가렴주구의 도구로 타락하는 病理가 조성되었다. 이러한 權威主義의 病理는 日帝植民支配下에서 軍國主義的 官僚權威主義에 의하여 深化되었고 解放후에는 다시 産業化過程에서의 後進國官僚의 權威主義, 金權萬能의 拜金主義思想, 그리고 分斷體制下에서의 安保至上의 軍事的 權威主義 등의 影響을 받아 政治·行政過程에서 逆機能을 露呈하였다. 이와 같은 權威主義의 病理의 現實的 屬性으로는 官僚主義, 官尊民卑意識, 擬人主義(人物에 의한 支配) 權威에 대한 默從, 指導者의 오만과 恣意와 便法主義 權力과 지위지향적 행태, 과잉정치화 및 사대주의성향 등을 들 수 있으며 한편 倫理的 權威主義의 現實的 屬性으로서 指導者의 爲民主義的 술선수범과 지도자에 대한 신뢰와 복종적태도 신분적 계층질서 등을 포함한다.

둘째의 특성으로 共同體性이다. 韓國의 傳統의 共同體性 政治文化는 現代社會까지 승계되어 現代政治文化의 한 特質로서 文化共同體의 大同主義 精神原初集團의 親和的 유대강조, 民族主義 강조, 社會連帶的 協同主義 강조, 일차적 유대를 강조하는 緣故主義와 派閥主義 등의 特性을 갖게 하고 있으며 아울러 共同體性의 屬性으로는 紐帶, 情, 義理, 信義, 報恩, 協同, 集團에 대한 忠誠非打算的 犧牲 등을 들 수 있다.<sup>4)</sup>

셋째의 특성으로 시민성이다. 市民性을 갖추게 한 傳統文化의 근거로는 弘益人間, 한얼思想, 民本, 人本主義思想, 朝鮮朝의 博詢採納의 言路開放, 韓末의 民權思想 및 東學思想 등을 들 수 있으며, 아울러 日帝時代의 民族獨立運動을 비롯하여 解放후의 民主주의 市民교육 언론신장과 民主主義啓蒙活動 政治民主化運動, 地方自治의 經驗, 60年代 이후의 急進的 産業化·都市化에 따르는 市民階層의 擴大화와 國民政治意識의 昂揚 등이 市民의 참여, 志向的 政治文化를 발전시키는데 크게 寄與하였다. 이러한 市民性의 政治文化의 具體的 屬性으로는 높은 政治意識과 政治的 效能感, 民主化 政治參與의 擴大, 政治的關心의 提高 平等意識과 進步的 改革追求 등을 들 수 있겠다.

넷째의 특성은 분파성과 파벌주의이다. 分派性의 特性을 가지게 한 傳統文化의 근거는 특히 조선조 주자학정치문화의 강력한 명분주의에 따르는 關闡正邪思想의 갈등, 四色黨爭의 폐습, 家門을 중심으로 하고 班常의 身分的 差別을 가리는 血緣的 家族主義, 地緣을 중심으로 한 緣故的 派閥主義, 학연을 중심으로

4) 金知勳, “韓國政治文化의 基本要因”, 「韓國政治學會報」第16輯, 1982, pp. 112-113.  
申命淳, “政治文化와 民主主義”, 韓國政治學會(編), 「現代韓國政治論」, 法文社, p. 273.

로 한 士林社會의 과벌 對立現象 등에서 찾아볼 수 있겠으며 나아가서는 日帝植民治下에서의 民族分裂 懷柔政策이 分派性を 動員하였고 解放후의 分斷體制下에서의 政治의 이데올로기 對立, 急進의 社會變動에 따르는 地域間 世代間 階層間的 隔差擴大에 따르는 葛藤造成, 「배경」과 「연줄」 중심의 집합적 과벌주의 등이 분과성을 심화시켜 왔다. 이러한 분과성과 과벌주의의 現實的 屬性으로 政黨組織의 人物中心派閥과 地域主義分派性, 情實에 의한 擬人主義와 非制度化傾向, 軍부와 法曹界의 期別分派現象, 閉鎖主義情實人事, 言論 및 財閥의 族閥主義人事 등이 들어나고 있다.

다섯째의 特性으로 저항성이다. 抵抗性的 傳統의 근거로 韓民族의 傳統的 正義意識을 근거로한 不義와 不倫에 對抗하는 根本主義 氣質, 外侵에 抗拒하는 愛族愛國精神, 花郎徒精神, 民族主體精神, 士林精神, 民亂, 衛正斥邪思想, 東學, 抗日獨立運動, 抵抗的 民族主義, 學生運動, 反獨裁 民主化運動 등이며 저항성의 속성으로 潔白性, 純潔性, 激情性, 改革志向性, 疎外層의 鬭爭心理, 不正에 抗拒하는 大衆動員 등을 들을 수 있다.

여섯째 特性으로 민족적 주체성이다. 民族的 主體性的 傳統의 근거로는 新羅의 民族統一成就 역사상 많은 國難克服을 통한 民族主體史의 展開, 民族史上 적절할 시기에 발양된 民族中興의 傳統, 民族文化의 伸長과 主體史觀의 定立, 東道西器運動, 東學혁명운동 등이 있으며 日帝植民支配下에서의 自主獨立運動 그리고 解放後의 反託運動 분단체제하의 民族統一精神, 單線的 近代化運動에 대한 민족주체적 시각에서의 反省, 60년대에 제기된 第2經濟論, 國學研究, 自主外交 등으로 승계되어 왔다. 그리고 民族的 主體性的 現實的 屬性으로는 강력한 民族主義意識, 主體的 外交와 統一政策指向 높은 民族的 自負, 長久한 民族史를 승계하려는 民族的 使命意識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곱째의 特性으로 평등성이다. 平等性的 傳統의 근거로는 建國神話에 나타난 흥이 인간의 世俗的 人間尊重思想, ‘한얼’思想, 天人合一思想, 人乃天思想, 趙光祖의 至治主義, 栗谷의 國是論, 北學派實學의 人間平等思想, 基督教思想의 수용, 賤賊과 民亂, 東學, 變革思想 등이 있으며 日帝植民支配下에서의 勞動運動, 農民運動, 衡平社運動, 學生運動과 解放후의 自由平等思想의 普及, 社會改革男女平等運動, 社會主義運動, 社會福祉政策 등으로 계승되었다. 그 屬性으로는 階層間 地域間的 所得再分配政策의 추구, 疎外階層의 解消努力, 富益富 貧益貧 現象을 가져온 성장우선주의 經濟政策의 反省, 機會均等主義, 社會正義의 具現 등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 VI. 國家論의 現代的 照明

개념상 國家를 한 部分社會나 한 社會團體로 파악하는 多元國家論이나 국가를 정부와 동일시하는 기능주의 국가론의 시각에서는 현대의 다원화된 사회에서 절실하게 요구되는 공동사회의 통합성에 대한 解答을 주지 못한다. 따라서 학가는 人間共同社會의 政治生活을 규율하는 기본적 틀이요 원리로서 정부를 핵심으로 해서 정치생활을 규율하는 정치형태라고 규정할 수 있겠다.<sup>5)</sup> 그리고 國家發展이란 정치형태의 근대화와 政治, 經濟, 社會 등 各下位體制의 발전을 통한 근대국가로의 이행을 의미하며 또한 민주발전이란 政治, 行政 分野에서는 정치체제의 변화와 성장을 통하여 구조상의 분화와 기능상의 자율화가 촉진되도록 제도화를 통하여 體制의 능력향상, 정치적 안정 및 국민화합이 이루어지는 체제형성을 의미하는 것이라 하겠다.

現代 政治行政文化에 큰 영향을 미친 한국의 近世朝鮮朝傳統文化의 긍정적 요인에 관하여는 앞에서 논술한 바이나 한편 그 부정적 요인에 관하여 論及한다면 그것은 上下의 경직화된 신분적 계급질서체제, 가부장적 권위주의 국가의 식과 관직사유관 및 파벌주의, 상고주의와 계선권력관직 선호풍조 그리고 名分主義에 의한 사대주의와 계급사회고정화 등의 병폐를 들 수 있겠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華夷世界秩序를 정당화한 이데올로기로서의 事大主義思想은 오늘날까지 支配層社會에 씨를 뿌려 계승되어 온 국제질서에 관한 의식형태이다. 또한 집권화된 정치사회체제와 중앙집권화된 권위주의의식 등이 朝鮮朝國家發展을 저해한 요인들이다.<sup>6)</sup>

日帝植民支配는 世界植民史上 그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가혹하고 철저한 것이었기 때문에 해방 후 建國과 근대화과정에서 막대한 후유증을 남겼음은 앞에서 論及한 바와 같다.

日帝의 植民政策이 軍國主義 專制統治方式과 日本人에 의한 直接統治方式을 구사하여 민족을 말살시키는 ‘皇民化 정책’을 강행한 것은 국내의에서의 치열한 抗日抵抗과 民族獨立運動에 위협을 느끼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그들 식민지배의 궁여책이었으며 日帝의 준엄한 탄압과 지배방식이 문화적으로 세련되게 심화될수록 韓民族이 입은 피해는 광범위하고 심각한 것이었다.

5) 拙著, 「政治學原論」, 全訂版(博英社, 1983), pp. 39-43.

6) 拙著, 「朝鮮王朝行政史(近世篇)」(博英社), pp. 47-59.

일제는 각종 非知性的인 ‘논리의 유희’를 농하면서 식민지배를 합리화하고 민족분열과 경제수탈을 자행하였기 때문에 우리의 민족성이 크게 다비되고 相互不信과 부정적 풍토가 사회에 뿌리를 박게 되었으며 상급자에 대한 面從腹背心理를 품게 되었고 또 暴力主義 鬭爭方式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다. 그리고 形式三義 行政文化를 더욱 심화시켜 합법성에만 집착하는 나머지 합목적성을 무시하는 무책임한 무사안일주의 행동방식을 몸에 짓게 하였다. 뿐만 아니라 절대각종을 강요하는 권위주의 관료문화를 배양하고 官尊民卑思想을 부식시켜 新生國의 民主發展을 크게 저해하였다.<sup>7)</sup>

해방 후의 한국의 권위주의는 기본적으로 사회 및 경제적 요인보다도 國內 및 국제정치적 요인이 작용해서 생성한 것이기 때문에 南美 등에서 나타난 소위 官窺의 權威主義와는 상이한 것이다. 물론 같은 개발도상국으로서 공통점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나 한국에서는 분단체제 하의 國家安保, 政治危機에 대응하는 집권의 장기화, 政府主導의 産業化政策 그리고 朝鮮朝와 日帝植民地 時代가 남긴 官僚文化의 유산 등이 원인이 되어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특이한 것이다. 그러므로 1960년대 이래의 한국의 政府主導의 産業政策은 한 近代化 戰略으로서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이지만 從屬理論으로 설명하기에는 논거가 매우 희박한 것이다.

韓國에서는 輸出主導型發展을 택하여 開放政策을 시행하고 있으며 1980년대 후반부터는 社會의 다양화와 자율화 및 국제화를 지향하여 自生的 社會勢力도 강화되고 조직화되어 있으며 따라서 市民社會階層의 기반이 확대되고 있다. 대외관계에 있어서도 종래의 依存關係를 청산하고 상호의존과 협력으로 자주적으로 국가이익을 증진하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고 일부 외국에서 韓國을 ‘第2의 日本’으로 전망하고 경계하기에 이른 것도 우연지사는 아니라고 본다.

이와 같이 한국이 南美型과는 相異한 日本型의 發展戰略을 지향하고 있으며 관료문화도 남미형의 소위 관료적 권위주의<sup>8)</sup>와는 상이한 한국 특유의 권위주의가 생성되고 있는데 그것은 傳統的 儒敎文化와 日帝植民主義遺産이 계승되고 특히 6·25전쟁과 5·16군사혁명을 계기로 한국 통치체제내에 뿌리깊이 체질화되어 확장된 군사적 경직성이 온존되어 있고 나아가서 政府主導의 經濟政策이 派

7) 朴著, 「日本帝國主義의 韓國統治」(博英社, 1986), pp. 506-514 참고.

8) David Collier(ed.), *The new Authoritarianism in Latin America*(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9). Guillermo O'donnell, "Reflections on the Patterns of Change in the Bureaucratic Authoritarian State," *Latin American Research Review*, Vol. 13, No. 1(1978), pp. 304-314.

신한 新版權威主義와 소위 國家組合主義(corporatism)경향 등 여러 가지 요인이 결합된데 특성이 있는 것이다. 오늘날 한국에서도 다양하게 성장된 社會勢力層에 급진주의 또는 民衆主義의 요구를 표명화하여 조직화하고 있는 것은 南美와 비슷한 양상이라 하겠으나 自由民主主義體制 속에 이들 다양화된 요구를 수용시켜야 하며 이들의 요구를 결집한 정당의 조직화도 요망된다. 다만 국토가 분단되고 남북이 대치되고 있는 한 안보와 사회통합의 필요에서 어느 정도의 權威主義는 지속될 것이다. 그리고 當面課題로서 勞動階層과 農漁民層 및 都市 零細民 등 일부 소외화된 계층의 요구를 결집시키고 이들의 政治行政參與를 제도화시켜 國家組合主義的 후진성을 탈피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sup>9)</sup>

9) 金雲泰, “官僚·行政分野에서의 沮害要因”, 『國策研究』(1986, 겨울호), pp. 121-136.